



길림성, 튼튼한 공급과 빈틈없는 정비로 춘경 준비에 박차

봄바람이 기름진 들판을 스치고 곡식창고는 풍년을 기다린다.

춘경 준비의 관건 시기에 접어든 지금 전 성 각지에서는 농사 시기를 다잡고 춘경 준비를 다그치며 종자 선택, 농기계 점검 수리, 기술 지도 등 여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논밭 곳곳에서 춘경 준비의 열기가 넘쳐나며 년간 식량 생산의 안정적인 풍작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농자재의 공급 보장은 춘경 생산의 '첫번째 관문'이다. 농업 동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 성적으로 농자재 물량이 충족하고 공급이 순조로우며 춘경 준비 사업이 전반적으로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다.

3월 19일까지 전 성의 종자 수요는 20.79만톤, 비축량은 20.59만톤, 농가에 전달된 량은 16.98만톤으로 전달률이 81.67%에 달한다. 화학비료 수요는 425.07만톤, 비축량은 413.54만톤, 농가에 전달된 량은 284.81만톤으로 전달률이 67%에 달한다. 농약 비축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예상 수요는 2.93만톤이고 비축량은 2.23만톤, 농가에 전달된 량은 7,700톤으로 전달률이 26.24%이다.

공주령시 흑립자진 금룡농자재상점의 진열대에는 우량종자, 화학비료가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여있다. 종업원들은 농가에 품종 특성을 설명해주고 재배 관련 의문을 답해주는 동시에 농자재를 빠르게 포장해 차에 실어 제때에 농가에 배송하고 있다.

"대규모 재배 농가에는 종자와 비료를 일대일로 배송하고 드론 병충해 예방 봉사(无人机防)를 무료로 제공한다. 소규모 재배 농가에는 종자 선택부터 파종까지 전 과정을 지도한다." 상점 책임자 로금룡의 말은 우리 성 농자재 봉사자 얼마나 세심하고 철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농자재의 우수한 질과 충족한 량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성에서는 2월중순부터 종자, 화학비료, 농약 등 생산물자의 공급 수요를 파악하고 제때에 부족한 부분을 조절하며 가짜 및 불량 농자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짜 및 불량 농자재 제조 판매를 엄격히 타격하여 농가에서 안심하고 춘경 준비를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 춘경을 앞두고 공주령시 쌍성보진의 옥수수밭에서 승림농민전문합작사 유기질비료 살포기가 질서 있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기계는 춘경 생산의 '주력군'이다. 각지에서는 빈틈없이 농기계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진행하여 춘경 생산에 기계화 동력을 주입했다.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의 재배호 왕양은 대마력 트랙터, 경운기, 무경운 파종기 등 신형 농기계를 정비하고 전면적으로 점검하며 발갈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올해는 논 30여헥타르를 경작할 타산인데 종자와 비료가 모두 준비되었고 농기계 점검이 전부 완료되었다. 기후가 알맞을 때를 기다려 발갈이를 시작할 것이다." 왕양의 말에는 열정이 넘쳐흘렀다.

기계 먼지 청소, 배선 고장 점검부터 소모성 부품 교체, 기계 성능 조정까지, 전 성에서는 101.17만대/세트에 달하는 농기계를 점검했는데 그 비례가 69.97%에 달한다. 수많은 농기계들이 최상의 상태로 춘경 준비에 나서며 식량 생산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은 식량 증산의 '관건적인 코드'이다. 우리 성은 '식량 생산과 과학기술에 의거'하는 것을 견지하고 우량종자, 우량방법, 우량기계의 융합을 통해 농업과학기술이 춘경 준비의 '강력한 힘'으로 되게 함으로써 단위당 생산량 제고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평시 철서구 중흥화농기계농민전문합작사의 지난해 옥수수 싹종무당 생산량은 1,213.8키로그램에 달해 리수현 옥수수 단위당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

"올해는 일찌감치 우량종자를 선택하고 좋은 비료를 준비했다. 거기에 '리수모식' 후토지 보호성 경작기술의 뒤받침까지 더해져 재배 규모가 한층 더 확대되고 풍년에 대한 확신도 더욱 커졌다." 리사장 리복화의 말은 과학기술로 농사를 짓는 데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올 들어 전 성에서는 콩 재배면적의 확대와 단위당 생산량의 제고라는 핵심고리에 초점을 맞추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을 통해 연인수로 154만 1,400명을 교육시키고 자료 96만 1,400만부를 발급해 선진적인 재배 기술을 논밭 곳곳에 전달하고 우량종자가 뿌리내리며 우량방법이 정착되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로 동력을 부여하며 식량 생산의 잠재력을 활성화했다.

국가 식량안전 정치책임을 단단히 짊어지고 증중이 생산 임무를 다그치며 재해 예방감소 방어선을 촘촘히 짰다. 이미 9,300만무 식량 파종면적 지도성 계획과 900억근 식량 생산량 목표표 각지에 분해하여 하달했고 지방

당위와 정부의 농업을 중시하고 식량 생산을 틀어쥐는 사업책임을 가일층 다졌다.

홍수방지와 가뭄대처를 함께 틀어쥐는 것을 견지했다. 서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단계적 가뭄에 대비하여 중서부 가뭄 취약 지역에서 미리 수원, 절수 관계 설비와 가뭄대처 농기계를 준비하도록 하고 '관개 비료 일체화' 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가뭄대처 파종면적이 2,500만무 이상에 달하도록 보장했다. 중동부 토양 과습(过湿) 지역에 대해서는 제때에 토지를 정비하고 수분을 분산시켜 제때에 파종하고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장했다.

춘경 준비는 꾸준한 노력을 들여야 성과를 낸다. "다음 단계에 우리는 농자재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조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구매 경로를 원활히 하며 농자재가 제때에 농가에 공급되도록 다그치고 가짜 및 불량 농자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농기계 점검과 운전자에 대한 양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임무 면적이 촘, 농가, 논밭에 락착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전력을 다해 국가에서 하달한 임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이다."라고 길림성농업농촌청 경작업관리처 부처장 당화산이 말했다. / 길림일보

1월-2월 길림성 화물무역 수출입 성과 두드러져

장춘세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우리 성 화물무역 수출입총액은 303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1% 증가했고 성장 속도는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15.8% 포인트 높았다. 그중 수출은 145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8%, 수입은 158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대외무역 주체 활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1월부터 2월까지 수출입 실적에 있는 우리 성 기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5개 증가했다. 외상투자 기업, 민영기업이 수출입의 주력군으로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했다. 수출입은 각각 132억 6,000만원, 105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1.9%, 39.6% 증가했고 합계로 동기 우리 성 수출입총액의 78.3%를 차지했다.

대외무역 '모멘트(朋友圈)'가 점점 커지고 있다. 1월부터 2월까지 우리 성 수출입 무역 왕래 국가 및 지역은 지난해 동기 대비 4개 증가했고 무역 파트너가 더욱 다

양화되었다. 이외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 56.8% 증가했다.

대외무역 제품 구조는 '품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육성하며 혁신을 추동하는(向优向新)' 태세로 전환되었다. 1월부터 2월까지 우리 성 수출 증가는 강력했는데 성장률이 전국 3위를 차지했다. 기계전자제품 수출은 64억 6,000만원으로 50.1% 증가해 동기 우리 성 수출총액의 44.5%를 차지했다.

신질생산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첨단장비, 생명약, 전자부품 및 녹색저탄소를 대표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배터리, 태양광(新三样)' 제품의 수출이 모두 크게 증가했고 새 동력의 선도 작용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이외 기계전자제품 수입은 126억 2,000만원으로 17% 증가해 동기 우리 성 수입총액의 79.6%를 차지했다. 그중 자동차 부품 수입이 51억 9,000만원으로 114.5% 대폭 증가하여 수입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되었다. / 길림일보

사명·실천

전국인대 대표 옥명희 :

실행으로 전국 량회 정신 뿌리내리게

"오늘 이 강연을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3월 17일, 왕청현 장영가두 강북사회구역 활동실에서는 박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전국인대 대표이며 길림성항신건설집단유한회사 종업원인 옥명희의 량회 정신 강연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대외 정신을 강연하는 외에도 오늘은 저의 <촌툰 의료·양로 결합 건설 강화하고 농촌 양로난을 해결할 데 관한 건의>도 말해주었다." 현장에 있던 62세 퇴직 종업원 진중문은 이 건의를 듣고 감동되어 "옥대표가 우리의 목소리를 량회에 전달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 옥명희는 농촌에서 조사연구를 했다. 70여세 조순족 로인이 옥명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명희야, 다리가 아픈데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80리나 가야 되니 마음이 항상 두려워진다." 이 말을 들은 옥명희는 마음이 아팠다. 이런 농촌 로인이 적지 않다. 자녀가 곁에 없고 병원까지 거리가 먼 상황에서 만약 촌에 의료·양로 결합 장소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바람이 없었어야 하는 것을 옥명희는 느꼈다.

"어떤 일은 시작을 하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실현 가능성도 없다." 북강사회구역에서 강연할 때 옥명희는 간절하게 말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달라. 나는 잘 기록했다가 여러분

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

옥명희는 전국 량회 정신의 '강연원'이자 '연락원', '전투원'이기도 하다. "저의 직책은 우리 백성들의 바람을 전국 량회에 가져가고 또 전국 량회 정신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며 민족 단결을 앞장서 수호하고 생태 우세, 자원 우세를 치부 우세로 전환시키는 것이다."라고 옥명희는 말했다. 말이 끝나자 현장에서 열렬한 박수가 터졌다.

올해는 옥명희가 전국인대 대표로 당선된 4번째 해이다. 일반 자료원에서 기술 담당자로, 전국'5·1'로력모범 수상자에서 전국인대 대표로, 그동안 신분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녀의 '장인정신'과 인민을 위해 직책을 수행하는 초심은 변한 적이 없다.

다년간 옥명희가 제출한 기층 농업과학연구단위 지원, 사회력량 현역 투입, '빙설+홍색산골' 융합 발전 등에 관한 건의들은 모두 국가 관련 부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층 대표로서 그녀는 '인민대표는 인민을 위해'라는 책임과 당당함을 진심으로 체감하였다.

"매일 업무일지를 쓰고 균중의 건의를 기록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지만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는 그저 빛을 받고 싶다. 한 정된 시간에 더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전국 량회 정신이 기층에 뿌리내리게 하고 싶다."고 옥명희는 말했다. / 길림일보

장춘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개막 300일 카운트다운

3월 21일,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가 300일 카운트다운을 맞이했다. 이날 장춘역사문화 박물관 본관에서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회장, 구호, 마스코트 공개 행사가 열렸다.

중국교육부 학생체육협회 연합비서처 부비서장이며 중국학생체육연합회 부주석인 만개걸,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장춘시당위 서기인 장은혜가 함께 눈송이 모양 퍼즐을 조립하자 현장 대형 스크린에 회장(会徽)인 '춘장(春光)'이 공개되었다. 회장은 초저체 '장(长)'자를 형상화하면서 국제대학생체육연합회(FISU)의 'U' 요소를 함께 담았다.

냉담양, 무대정, 송룡, 리천마 등 유명 빙설 운동선수들이 대회 주제 구호 '빙설의 꿈을 좇아 청춘이 영원히 길(逐梦冰雪, 长驻青春)'을 함께 발표했다. 장춘시 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고강과 길림시 당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왕길이가 함께 소품 상자를 열자 마스코트 '길빙(吉冰)'과 '길설(吉雪)'이 화려하게 등장했다. 마스코트는 길빙 꽃사슴, 장백산인삼을 원형으로 동북의 특색을 생생하게 담았다.



▲ 3월 21일, 장춘 2027 제33회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개최 300일을 앞둔 기념행사가 신민거리에서 열렸다. 대회 회장, 주제 구호, 마스코트가 공식 발표되면서 대회의 시각적 형상 체계와 문화적 핵심이 완전히 구축되었음을 알렸다. / 길림일보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장춘 신민거리는 축제와 거리로 변모했다. 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튜링음악회, 문화관광 카라반(文旅大篷车), 백인 퍼레이드(百人巡游), 문화창의장터, 빛영상쇼(光影秀轮) 등이 차례로 펼쳐졌고 장춘, 길림, 사평, 료원의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들이 함께 기량을 선보여 문화·체육·관광의 깊은 융합을 이루어냈다.

길림시 분회장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우리는 모두 꿈꾸는 사람> 천인 대합창이 캠퍼스를 가득 메웠고 시내 41개 대형 스크린에서는 동시에 카운트다운 영상이 상영되었다. 길림시빙상운동중심에서는 1만여명 관중이 장춘세계대학생동계운동회 회장, 구호, 마스코트 발표 영상을 관람했다. 또한 2026 길림시 '무송집' 아이스하키 슈퍼리그가 뜨겁게 개막되어 스포츠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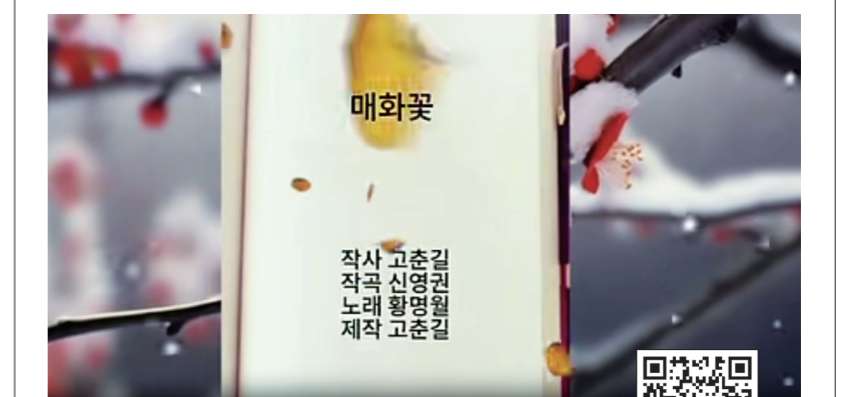
의 아름다움이 빙판 위에 화려하게 펼쳐졌다.

장춘은 북위 43도 황금 빙설지대에 위치해 동계아시아게임, 바사국제스키축제 등 고수준 경기 개최 경향이 풍부하다. 2025-2026 빙설 시즌에 '스키 배우려면 장춘으로' 브랜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2026년 음력설 기간 장춘시는 국내 관광객을 연인수로 근 2,000만명 접대, 국내 관광총수입 193억 4,800만원을 실현해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4.51%와 25.58% 증가했다.

장춘 분회장에서 길림 분회장까지, 회장, 구호, 마스코트의 집중 발표에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 도시 카니발까지, 장춘, 길림 두 도시가 련동하여 청춘과 빙설과 꿈의 초청장을 세계에 보냈다. 이는 단순한 경기의 사전 열기 조성이 아니라 두 도시가 '빙천설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실천하는 빛나는 순간이며 또한 '랭자원'이 '열경제'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국제경기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만남'이기도 하다.

/ 오건자

· 가요 ·



매화꽃

작사: 고춘길 작곡: 신영권 노래: 황명월 제작: 고춘길

